

의궤(儀軌)에 나타나는 고유 복식(服飾) 어휘*

- 17세기 의궤를 중심으로 -

오창명(제주대)

〈 목 차 〉

- | | |
|---------------|---------------|
| 1. 머리말 | 2.2. 복식 관련 어휘 |
| 2. 본론 | 3. 결론 |
| 2.1. 의복 관련 어휘 | |

1. 머리말

이 연구는 17세기 의궤에 쓰인 고유 복식 어휘 목록을 정리하여 해독하고, 국어사적 또는 국어학적으로 분석하는 과정의 한 작업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의궤는 의례의 본보기로, 조선시대에 국왕이나 왕세자, 왕비 등과 관련된 큰일을 치를 때 후세에 참고를 위하여 그 일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경과를 자세하게 적은 책을 이른다. 이들 의궤 중에 국왕이나 왕세자 등의 혼례의식에 대한 절차를 적은 『가례도감의궤』나 『가례도청의궤』, 임금이나 왕비 등의 국상과 국장 등의 절차를 적은 『빈전도감의궤』와 『혼전도감의궤』, 『빈전혼전도감의궤』 등은 궁중의 혼인 의식과 국상 의식, 국장 의식은 물론 복식 문화 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다.

* 이 논문은 2008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연구임.[KRF-2008-358-A00057]

특히 이들 의궤에는 17세기 초반 또는 그 이전에 썼던 고유어 궁중 복식 어휘 또는 일반 복식 어휘가 차자표기로 기록되어 있다. 이 차자표기를 바로 해독하면 17세기 초반 또는 그 이전의 고유어 복식 어휘를 재구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차자표기의 복식 어휘를 국어사적으로 해독하면 어휘의 변천사를 살필 수도 있다. 또한 복식 어휘를 바로 해독하고, 복식 어휘의 용도 등을 바로 재구하면, 현재 복식 사전이나 국어사전에 잘못 등재하거나 설명되어 있는 것을 바로 잡을 수 있다.

가령 《가례언해(1632)》 ‘2:15’에서 ‘너울’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에 대응하는 표기는 이른 시기에 汝火 또는 羅火로 표기되고, 근대국어 시기에는 주로 羅兀 등으로 표기되어 있다. 汝火와 羅火는 ‘너울’의 이전형으로 추정되는 “너블>‘너블’의 차자표기라고 할 수 있다. 『태종실록』 권15 ‘8년 5월 계유’에서 羅火筭[너블간], 『중종실록』 권39 ‘15년 5월 무술’에서 羅火[너블]을 확인할 수 있고, 18세기 이후 의궤에서는 羅兀[너울]로 표기되었다.

특히 17세기 한글 문헌에서 ‘너울’을 확인할 수 있는데, 1681년 『가례도감도청의 궤』에서는 羅火를 확인할 수 있으니, 의궤류 어휘 표기가 의고성을 띄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역어유해보(1775)》에서 확인되는 ‘불끼’(遮臉皮 불끼)는 17세기 초반 의궤에서 𪛗裏 또는 甫乙裏로 표기되고 17세기 후반 의궤에서 𪛗只·甫乙只·甫只 등으로 표기했다. 이로 보아서 현대어 ‘불끼’, 근대어 ‘불끼’의 이전형인 “불리”를 상정할 수도 있게 된다.

오늘날 국어사전이나 복식사전에 ‘동달이’는 ‘검은 두루마기에 붉은 안을 받치고 붉은 소매를 달며 뒷솔기를 길게 터서 지은 군복’ 또는 ‘병정의 등급에 따라 군복의 소매 끝에 단 가는 줄’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腰輿二部 所入 馬木四介……同道里次大紅綉十七尺”와 “翼帳四浮……同道里四面草綠匹段” 등에서 확인되는 同道里(동도리)는 ‘동돌이’의 차자표기이다. 이것을 보면 현대어 ‘동달이’의 옛말은 ‘동돌이[동

1) “서지가 아뢰기를, 신이 듣건대, 하정이 도망칠 때에 여자 옷을 입고 너울[방언으로, 얼굴을 가리는 물건을 말한다.]을 쓰고서 나갔다고 합니다.(社曰 “臣聞 河珽逃竄時, 具女服着羅火[方言 蔽面之名]而出)”

도리]’ 또는 ‘동둘이[동드리]’를 상정할 수 있고, 이것은 꼭 군복에만 매는 것이 아니라 익장이나 요여 등에도 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더욱이 북한에서는 ‘동달이저구리(색동저고리), 색동달이(색동)’ 등이 쓰이는 것을 고려하면, ‘동둘이>동달이’는 ‘동(어떤 물체 따위에 이어 대는 동강의 조각이나 줄)+둘(달: 懸)+이(명사형성접사)’의 구성으로 이루어진 말임을 추정할 수 있다.

국어사전이나 복식사전에서 ‘도투락’을 찾으면 ‘도투락뎡기’와 같은 말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金都多益眞珠粧笠—(금도투락 진주를 장식한 갓 하나)”의 都多益은 ‘도투락’의 옛말 ‘도타락’의 차자표기로, ‘도투락뎡기’와 같은 말이 아니다. 그러므로 복식사전이나 국어사전의 설명에 ‘도투락’에 대한 다른 설명이 더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이 의궤의 복식 어휘를 제대로 해독하고 국어사적, 국어학적으로 분석하면, 고유어를 되살릴 수 있는 길이 다양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용도와 기능을 제대로 밝히면 복식 사전이나 국어사전에서 설명이 미진하거나 미흡한 것, 잘못 설명한 것 등을 바로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의궤류의 차자표기 복식 어휘에 대해서는 의류학 또는 의상학을 전공하는 학자들에 의해서 목록이 정리되어 왔다. 대표적인 것이 유송옥(1991)이고, 이외에 조효순(1981), 홍나영·유희경(1983), 박성실(1991), 송미경(2009)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 연구들은 차자표기 복식 어휘를 해독하거나 국어학적으로 연구하는 데는 나아가지 못했다.

차자표기의 복식 용어에 관한, 이른 시기의 언급은 고복남(1983)에서 볼 수 있다. 여기서는 腋注音의 注音을 ‘주름’의 차자표기로 파악했으나, 串衣를 ‘천의’로 읽는 잘못도 눈에 띈다. 오창명(1997)은 의궤류의 차자표기 복식 어휘를 국어학적으로 해독한 것인데, 이러한 연구가 좀 더 심화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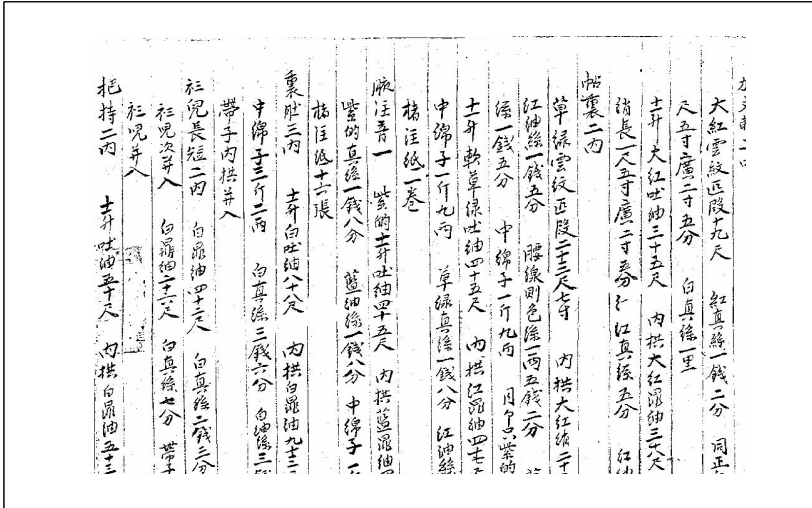
이 연구도 의궤류의 차자표기 복식 어휘를 해독하고 심화하는 차원으로 쓴 것이다.

2. 본론

1627년 『昭顯世子嘉禮都監儀軌』 ‘後, 十二月 二十七日’에서 복식 어휘의 차자표기가 나오는 부분 중 예 하나만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世子宮衣襟

翼善冠一……馬尾笠一……馬尾……回繩紫的絲……纓子懸伊色眞絲……片竹……帽子次長竹……涼太次……小烏巾一……網巾……玉貫子具一……馬尾……團領一……加文刺二……同正……內拱……同正……帖裏二……腰線……月々只……腋注音一……裏肚三……帶子……衫兒長短二……帶子衫兒次……帶子白鼎袖衫兒……把持二……苔二……冕服一件……刀子一部……牙柄四……連簪……尖子……鞞兒次……上下々只……衾四……衿……苔……衿……苔……枕四……大……隅……赤作……拘牙兒……仇羅……邊兒……縵……苔……隅……中……隅……赤作……拘牙兒……仇羅……邊兒……廣縵……苔……十一兩隅……赤作……拘牙兒……仇羅……邊兒……廣縵……苔……縵……梳貼……木梳……竹梳……黑角簪……中鏡……磨鏡……揮巾……衿……手巾……鏡匣……靴……套鞋……昌……衿……涼精……回伊……衿……衿……衣襟匣……黑漆馬尾笠家……裹……



『소현세자가례도감의궤(昭顯世子嘉禮都監儀軌)』 고유 복식 어휘 표기 예

이러한 예를 바탕으로 하여, 의복 관련 어휘와 복식 관련 어휘 목록을 정리하여 그것을 해독하고 국어사적, 국어학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2.1 의복 관련 어휘

의궤류의 고유 복식 어휘는 대개 일상복이 아닌 예복에 관한 것을 기록하였는데, 이들 중 고유 예복의 표기를 고찰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이것을 살펴보는 데 있어서, 크게 속옷류 어휘,²⁾ 옷옷류 어휘,³⁾ 치마와 바디류 어휘,⁴⁾ 것옷류 어휘⁵⁾ 등으로

2) ‘속옷’의 옛말이자 방언은 ‘솥옷’이다. 그런데 ‘솥옷’은 16세기 국어에서도 ‘속옷’이라 했다. 속옷류 어휘는 내의류 어휘라고도 할 수 있다.

3) 현대국어의 표준어는 ‘옷옷’을 인정하지 않고 ‘윗옷’을 인정하지만, 중세국어에서는 ‘옷옷(옷+ㅅ+옷)’으로 쓰였다. 옷옷류 어휘를 상의류 어휘라고도 할 수 있다.

4) ‘바지’의 옛말은 ‘바디’이다. 치마와 바디(바지)류 어휘를 아울러서 하의(下衣)류 어휘라고도 할 수 있다.

5) 현대국어의 ‘겉옷’에 대응하는 중세어는 문헌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겉’에 대응하는

나누어 살펴본다.

옷은 대개 홑옷, 겹옷, 핫옷, 누비옷 등으로 나뉘고, 홑옷은 單衣라 하고, 겹옷은 袂衣라 하고, 핫옷은 襦衣라고 한다.⁶⁾ 그리고 크기에 따라서 小 또는 長을 덧붙이기도 한다.

2.1.1 속옷[內衣]류 어휘

‘속옷’은 겉옷의 안쪽에 몸에 직접 닿게 입는 옷이다. 현대국어와는 조금 달리 ‘팬티’가 없으므로, ‘속옷’은 안에 입는 옷옷[上衣]이라 할 수 있다.

2.1.1.1 內衣[속옷>속옷], 裏衣·裡衣[속옷>속옷], 單裏衣·單裡衣[홑속옷], 袂裏衣·袂裡衣[겹속옷]

內衣와 裏衣·裡衣는 ‘속옷≪능엄경언해(1461)≫>속옷’의 차자표기이고, 單裏衣·單裡衣와 袂裏衣·袂裡衣 등이 있다.

『세종실록』 권9 ‘2년(1420 9월 무인(13일)’에서 白苧布裏衣를 확인할 수 있고, 『인조장렬후가례도감의궤』에서는 袂裏衣와 單裏衣 등으로, 1696년 『왕세자가례시도청의궤』에서는 裡衣로 표기되었다.

‘속옷>속옷’은 현대어 ‘속곳’, 곳 겉옷의 안쪽에 몸에 직접 닿게 입는 옷을 이른다. 赤衫이나 汗衫 안에 입는 것이다.

單裏衣·單裡衣는 ‘홑속옷>홑옷>홑속옷’, 袂裏衣·袂裡衣는 ‘겹속옷>겹속옷’의 차자표기이다. 裏·裡는 ‘습(裏 습 리≪훈몽자회>(하, 15ㄱ)>속(裏 속 니≪유합>(상, 2ㄱ))’의 훈독자 표기이다.

중세어 ‘겉≪월인석보>’과 ‘옷’이 결합하면 ‘옷옷’, ‘것면[浮面]’ 같이 ‘것옷’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것옷류 어휘를 현대어로 겉옷류 어휘라 할 수 있다.

6) 1932년 『인목왕후빈전혼전도감의궤』에서 單衣, 袂衣, 襦衣라는 용어를 확인할 수 있다. 單은 ‘홑’ 또는 ‘홀(홀옷)’, 襦는 ‘핫’ 또는 ‘할(할옷)’의 표기로 쓰였다.

2.1.1.2 褻肚[고두], 袂褻肚[겹고두], 襦褻肚[햇고두]

褻肚는 조선시대에 왕이나 왕세자 또는 관리들이 두르는, 남자 속옷 중 하나이다. 한편 염할 때 시체의 배를 싸는 데 쓰는 壽衣를 이르기도 한다. 褻肚는 帖裏[털리]·腋注音(액주음)과 汗衫[한삼]·衫兒[삼스>삼으] 사이에 끼어 입는 옷을 이른다.

『단종실록』 권4 ‘1년(1452) 10월 임진(4일)’의 기사를 보면, 임금인 金有 등에게 치사하고, 鴨靑綿布圓領·柳靑紬塔胡·草綠紬帖裏·白縞褻肚·袴兒·汗衫 각각 2領, 黑靴 2쌍을 나누어 주었다고 했다. 『세조실록』(권15, 5년 3월 정유)에서는 袂褻肚를, 『세조실록』(권43, 13년 7월 을유)에서는 襦褻肚를 확인할 수 있다.

《번역박통사(1517)》 ‘상: 26’에서 “적삼 고의 고두류엿 속오스란 안직 니르디 마져(衫兒袴兒褻肚等裏衣且休說)”라고 하고, 「순천 김씨묘 언문 간찰」에서는 ‘고도’라고 기록한 것으로 보아, 褻肚는 곧 ‘고두’ 또는 ‘고도’라 했음을 알 수 있다. 褻肚의 종류에는 袂褻肚[겹고두]와 襦褻肚[햇고두] 등이 있다.

그런데 이 ‘고두’가 어떤 것인지는 확실하게 정의되지 않은 듯하다.

褻肚(과두) : 염할 때 시체의 배를 싸는 데 쓰는 수의

고두 : 복대(腹帶)의 옛말. 적삼 고의 고두류엿 속오스란 안직 니르디 마져”(《번역박통사》(1517) 상: 26)

《『표준국어대사전』(국립국어원)》

과두(褻肚) : ① 조선시대 관리들이 입는 내의(內衣). …… ②시체의 배, 허리를 싸는 데 사용하는 수의(壽衣)의 하나. ……

《『한국복식문화사전』(1998: 58)》

과두(褻肚) : …… 王의 平常服 중에 가장 옷옷으로 입는 袍의 一種이거나, 禮服 속에 받쳐 입는 袍의 一種으로 생각된다.

《유송옥(1991: 125)》

과두(褻肚) : 도포(道袍)에 두르는, 수놓은 허리띠.

《『교학 대한한사전』(1998:2959)》

앞으로 褻肚에 정확한 고증이 있어야 할 것이다. 한편 현대 국어사전에는 ‘고도’를

‘궁중에서, 흰 겹저고리를 이르던 말’이라고 하였다.

《소현세자가례도감의궤》에서 왕의 裏肚를 보면, “裏肚三內 十一升白吐絁八十八尺 內拱白鼎絁九十三尺八寸 中綿子三斤二兩 白眞絲三錢六分 白絁絲三錢六分 帶子內拱并入”라고 하였다. 이로 보아 내공(內拱: 안접)이 있고, 띠(帶)가 달린 속옷의 한 종류라 할 수 있다. 裏肚는 衫兒 바깥쪽, 腋注音 안쪽에 입었다.

한편 裏肚는 17세기 의궤류에서 주로 裏肚로 쓰였는데, 이에 대해서는 복식 관련 연구에서도 전혀 언급되지 않은 듯하다. 현재로서는 裏肚가 裏肚를 잘못 이해하고 쓴 것이 아닌가 하고 추정한다. 18세기 『영조정순후가례도감의궤』에서는 襦裏肚를 확인할 수 있다.

					
					
〈세조실록 권15 5년 3월 정유〉	〈1627 소현세자가례도감의궤〉	〈1649 인조빈전도감의궤〉	〈1651 왕세자가례도감의궤〉	〈1671 가례도감〉	〈1681 가례도감도청의궤〉

2.1.1.3 衫兒[삼스>삼으], 長衫兒[긴삼스], 單衫兒[더른삼스], 濶衫兒[활삼으]

衫兒는 帖裏[철릭]이나 袂帖裏[겹철릭], 裏肚나 袂裏肚 안에 입는 옷으로, 왕과

왕세자, 왕비, 왕세자비의 옷이다.

《박역 박통사》 ‘상, 26’의 ‘적삼(衫兒)’, 《노걸대언해》 ‘상, 29’의 ‘뵤적삼 자락(衫兒襟兒)’, 《박통사언해》 ‘상, 25’의 ‘적삼 고의(衫兒袴兒)’, 《동문유해》의 ‘상, 55’의 ‘적삼(衫兒)’ 등을 고려하면, 衫兒는 漢語에서 들어온 말로, ‘적삼>적삼’에 대응하는 말이다.

衫兒는 ‘삼스>삼으>삼아’로 읽었을 듯하나, 이에 대응하는 말은 현재까지 문헌에서 확인할 수 없다. 다만 이에 대응하는 고유어 ‘적삼>적삼’이 오늘날까지 쓰이고 있고, 이 ‘적삼’에 대응하는 차자 표기는 赤衫으로 쓰였다.

衫兒는 조선왕조실록 중 『단종실록』에서부터 『광해군일기』까지 확인되고, 赤衫은 조선왕조실록 중 『성종실록』과 『중종실록』에서 확인된다.

가례도감의궤에서는 주로 衫兒, 長衫兒, 單衫兒 또는 衫兒長短 등으로 쓰였으나, 복식 사전이나 국어사전에서 ‘삼아’는 등재되어 있지 않고 ‘적삼>적삼’과 ‘赤衫’만 등재되어 있다.

2.1.1.4 汗衫[한삼], 濶汗衫[활한삼], 唐汗衫[당한삼]

汗衫은 《역어유해》 ‘상, 44’의 “汗衫 썸맞기 적삼 衫兒 上소”, 《물보》 ‘의복’의 ‘相服 汗衫 적삼’이라 한 것을 고려하면, ‘썸맞기 적삼’ 또는 ‘적삼’이라 했음을 알 수 있다. 오늘날 국어사전에서는 궁중에서 ‘속적삼’을 이르는 말이라고 하였다. 濶汗衫은 넓은 품을 가진 한삼을 이른다.

汗衫은 주로 赤衫이나 胡袖 안쪽에 입었다.

2.1.2 옷옷[上衣]류 어휘

‘옷옷’은 현대어 ‘윗옷’에 대응하는 옛말이자 방언으로, ‘솥옷>속옷’ 바깥 위에 끼입는 옷을 이른다. 곧 윗도리 위에 입는 옷을 이른다.

2.1.2.1 赤衫[적삼], 小赤衫[적은적삼], 單赤衫[훈적삼]

가례도감의궤에서 赤衫이라는 어휘를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1601년 『의인왕후

빈전혼전도감의궤(懿人王后殯殿魂殿都監儀軌)에서는 小赤衫을, 1632년의 『인목왕후빈전혼전도감의궤』에서는 小赤衫, 單赤衫 등을 확인할 수 있다.

赤衫은 ‘적삼>적삼’의 차자표기이다. 순천 김씨묘 언문 간찰 에서 ‘적삼, 소적삼, 겹적삼, 차근저구리’ 등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小赤衫은 ‘쇼적삼>소적삼’ 또는 ‘작은적삼’, 單赤衫은 ‘훗적삼’의 표기라고 할 수 있다.

2.1.2.2 中衫[중삼]>중삼

中衫은 국어사전이나 복식 사전 등에서 확인할 수 없으나, 의궤류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개 長衫과 露衣 안에 입는 옷옷으로 나온다.

2.1.2.3 單衫[단삼]

單衫은 『인조장렬후가례도감의궤』에서 확인되는데, 大衫과 褙子 다음에 기록되었다. 복식 사전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데, 국어사전에서 ‘單衫’은 ‘적삼’과 같은 말이라고 했다. 속담에 ‘단삼 적삼 벗고 은가락지 낀다’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서 ‘단삼’을 확인할 수 있다.

2.1.2.4 赤古里[저고리>저고리], 短赤古里[더룬저고리], 襦赤古里[햏저고리], 袂赤古里[겹저고리], 襦赤古里[햏저고리]

赤古里는 ‘저고리>저고리’의 차자표기, 短赤古里는 ‘더룬저고리>짧은 저고리’의 차자표기이다. 『가례등록(1638~1662)』에서는 襦赤古里와 袂赤古里를 확인할 수 있는데, 각각 ‘햏저고리>햏저고리’, ‘겹저고리>겹저고리’의 차자표기이다. ‘겹저고리’는 『선조실록』(권32, 25년 11월 계유)에서 重襖로 표기되었다.

「순천 김씨묘 언문 간찰」에 ‘저구리’, 《역어유해(1690)》(상:45)에서 “小襖子 저구리 옷”이라 하고, 《역어유해보(1775)》(28)에서 “掛子 긴 저고리”로 기록한 것으로 보아, 서울방언에서는 ‘저구리>저고리>저고리’로 변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부 방언에서는 아직도 ‘저구리’라 하는 지역이 있는데(전라, 제주 등), 이 지역에서는 ‘저구리>저구리’로 변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세종실록』(권9, 2년 9월 무인) 등에서 赤古里(적고리), 『성종실록』(권253, 22년 5월 기묘)에서 甲赤古里(갑적고리)를 확인할 수 있는데, 赤古里(적고리)는 ‘저고리>저고리’, 甲赤古里(갑적고리)는 ‘겹저고리>겹저고리’의 표기이다.

『태조실록』(권13, 7년 2월 임오) 등에서 襦衣, 『세조실록』(권20, 6년 4월 을묘)에서 小襖子, 『세조실록』(권22, 6년 10월 갑인)에서 襦小襖, 『연산군일기』(권57, 11년 1월 경인)에서는 襦衣와 襦小襖子를 확인할 수 있다. 襦衣는 남자가 입는, 숨을 넣은 저고리이고, 小襖子는 여자가 입는 저고리이고, 襦小襖는 여자가 입는, 숨을 넣은 저고리를 이른다.

조선왕조실록의 번역본에서는 襦衣를 ‘저고리’ 또는 ‘숨저고리’ 등으로 해석하고, 국어사전에서는 襦衣를 ‘동옷(남자가 입는 저고리. 겹것과 핫것이 있다.)’과 같은 말이라고 했다. 그런데 『세종실록』(권11, 3년 4월 을미)에서 單衣, 袂衣, 襦衣 등을 확인할 수 있고, 『세조실록』(권20, 6년 4월 을묘)에서 小襖子, 『세조실록』(권22, 6년 10월 갑인)에서 襦小襖子 등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그 설명에 유의해야 한다.

『가례등록(1638~1662)』에서는 襦赤古里와 袂赤古里를 확인할 수 있는데, 襦赤古里는 ‘핫저고리>핫저고리’, 袂赤古里는 ‘겹저고리>겹저고리’의 표기이다.

2.1.2.5 腋注音[결주름], 襦液注音[핫결주름], 袂腋注音[겹결주름], 隔音[막음], 袂隔音[겹막음], 肩尔只·腋尔只[결막이], 袂肩尔只·袂腋尔只[겹결막이], 襦腋尔只[핫결막이]

腋注音은 ‘결주름>결주름’의 차자표기로, 첩릭[帖裏] 아래에 입는, 주름을 놓은 치마의 한 종류를 이른다. 腋은 ‘넙>옆’ 또는 ‘결’(표기 과정에서 평폐쇄음화에 따라 ‘결’으로 씀.)의 훈독자이고, 注音은 ‘주름·주름>주름’의 음가자 결합 표기이다. 腋注音은 왕과 왕세자의 옷으로 입었다.

조선왕조실록에서는 『성종실록』(권152, 14년 3월 갑진)에서 襦液注音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세종실록』(권111, 28년 3월 갑오)에서 袂注音衣⁷⁾와 袂注音을,

7) 袂(=頰)은 ‘보조개 험<<훈몽자회>>(상, 13ㄱ)’인데, 본래 음은 古協切로 ‘겹’이다. 袂은 ‘결방, 결’의 뜻을 가진 한자이기 때문에, 훈독자로 쓰여 袂注音衣는 [결주름옷]의 차자표기가 된다.

『세종실록』(권123, 31년 1월 병오)에서 直領과 帖裏 사이에 腴注音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세종실록』(권112, 28년 5월 임진)에서는 의정부에서 服色詳定條件을 아뢰면서, “第三條 庶人·各司諸員·隊長·隊副·外方の 日守兩班 및 工商·賤隸는 團領은 없애고 帖裏와 腋皺衣·直領衣를 두루 입을 것”이라 하였다.

『가례등록』(1638~1662)에서는 襦液注音과 袂液注音을 확인할 수 있는데, 각각 ‘한결주름’과 ‘겹결주름’의 차자표기이다.

《번역노걸대(1517)》에서 ‘주름’을 확인할 수 있고, ‘ㄹ는 결주름(細摺)《노박-박, 상:2》’, ‘ㄹ는 주로 주름(細摺兒), 너븐 주름(板摺兒)《역어, 하: 6》’, 비단 너븐 주름 털리, ㄹ난 줄음 털리《노걸, 하:45ㄱ》, 注乙音 줄음 摺疊縫造 如帖裏下常也《行用吏文》’ 등을 고려하면, 腋液音은 ‘결주름·결주름·결줄음’ 등으로 읽을 수 있다. 襦液音은 ‘하결주름’으로, 腴注音衣와 腋皺衣는 ‘결주름옷’으로, 腴注音은 ‘결주름’으로 읽을 수 있다.

『세종실록』(권9, 2년 9월 무인)에서 확인되는 隔音과 袂隔音은 각각 ‘(가로)막음’, ‘겹(가로)막음’의 표기로, 현대어 ‘겉마기’에 대응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남자의 腋注音에 대응하는 것으로 보이는 여자의 肩ㄹ只 또는 腋ㄹ只가 있는데, 이것은 현대국어 ‘겉마기(여자가 예복으로 입던 저고리의 하나. 연두나 노랑 바탕에 자숫빛으로 거드랑이, 깃, 고름, 끝동을 단다.)’에 대응하는 표기이다. 『병인가례시옷던의디불기』(장서각 소장)에서는 ‘겉마기’로 표기되었다.

1601년 『의인왕후빈전혼전도감의궤』에서는 小赤衫과 小赤古里 다음에 袂肩ㄹ只와 肩ㄹ只를 표기했는데, 袂肩ㄹ只는 ‘겹겉마기’, 肩ㄹ只는 ‘겉마기’의 표기이다. 적삼과 저고리 위에 입고, 肩ㄹ只 위에는 長衣[장옷]를 입혔다.

1632년 『인목왕후빈전혼전도감의궤』에서는 腋ㄹ只, 袂腋ㄹ只, 襦腋ㄹ只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도 각각 ‘겉마기’, ‘겹겉마기’, ‘하겉마기’의 표기이다.

2.1.2.6 串衣[곶의], 小串衣[쇼곶의], 袂小串衣[겹쇼곶의], 襦小串衣[하쇼곶의], 唐串衣[당곶의]

1632년 『인목왕후빈전혼전도감의궤』에서 확인되는 小串衣, 袂小串衣, 襦小串衣, 納小串衣, 唐串衣, 袂唐串衣등이 확인되는데, 小串衣와 串衣가 어떤 옷인지

확실하지 않다. 그러나 현대국어 ‘고쟁이’(한복에 입는 여자 속옷의 하나. 속속곳 위, 단속곳 밑에 입는 아래 속곳으로, 통이 넓지만 발목 부분으로 내려가면서 좁아지고 밑을 여미도록 되어 있다. 여름에 많이 입으며 무명, 베, 모시 따위를 홀으로 박아 짓는다.)에 대응하는 옛말 ‘곳의[고지]’의 표기가 아닌가 한다.

18세기 의궤인 『영조정순후가례도감의궤』의 중궁전의대에서도 串衣가 확인된다.

2.1.3 치마[赤尔·裳]와 바디류 어휘

‘치마’는 여자의 아랫도리 겹옷과 조복·제복 따위의 아래에 덧두르는 옷 따위를 이른다. ‘바디’는 현대어 ‘바지’에 대응하는 옛말로, 아랫도리에 입는 옷의 하나이다. 위는 통으로 되고 아래에는 두 다리를 꿰는 가랑이가 있다.

2.1.3.1 赤尔[치마], 單赤尔[훗치마], 袂赤尔[겹치마], 長赤尔[장치마/긴치마], 小赤尔[작은치마], 襦赤尔[햇치마], 上赤尔[웃치마]·表赤尔[겉치마], 納赤尔[누비치마]

赤尔는 ‘치마’의 차자표기, 單赤尔는 ‘훗치마>홀치마’의 차자표기, 長赤尔는 ‘긴치마’의 차자표기이다. 『가례등록(1638~1662)』에서는 襦赤尔와 袂赤尔도 확인되는데, 각각 ‘햇치마’, ‘겹치마’의 차자표기이다.

赤이 ‘치’의 음가자로 쓰인 것은 『고려사』의 몽골어 관직명과 인명 표기 등에서 확인될 뿐만 아니라, 『용비어천가』(권7)의 북방민족어명 표기인 ‘阿赤郎貴 아치랑귀’에서도 확인된다. 한편 ‘單 훗 단<신합, 하:44>, ‘홀옷/單衣’<동신, 열4:24>, 單袴 훗고의<역해, 상:45>, ‘襦 다룬 한옷 유 襖 햇옷 오<신합, 상:31>, 袂 겹옷 험 袂衣<훈몽-초, 중:12>’ 등에서 확인되듯이, 單은 ‘훗’의 훈독자, 袂는 ‘겹’의 훈독자, 襦는 ‘햇’의 훈독자 표기로 쓰였음을 알 수 있다.

『세종실록』 권9(1420) ‘2년 9월 무인(13일)’에서 赤尔와 袂赤尔, 『중종실록』 권 58 ‘22년(1527) 4월 기유(3일)’에서 赤尔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치마’의 차자표기인 赤尔는 비교적 일찍부터 쓰였다고 할 수 있다.

1932년 『인목왕후빈전혼전도감의궤』에서 확인되는 上赤尔는 ‘웃치마’의 차자표기로, 치마 위에 덧입는 치마를 이른다. ‘웃치마’에 대응하는 말은 현대국어 표준어에서 ‘겉치마’라고 하고, 북한에서는 ‘웃치마’라 하고 있다. 納赤尔는 ‘누비치마’의 표기이다. 그런데 1932년 『인목왕후빈전혼전도감의궤』에서 表赤尔도 확인되는데, 이것은 ‘겉치마>겉치마’의 차자표기이다. 그러므로 이 당시에는 上赤尔와 表赤尔의 구분이 있었던 듯도 하다.

「병인가례시웃던의디볼기」(장서각 소장)에서 ‘자근치마’와 ‘웃치마’를, 임오 천만세 동궁마마 가례시 직간택 후 보니오실 빈궁마누라 의디 볼기 (장서각 소장)에서 ‘겹치마, 자근치마, 무죽치마’ 등을 확인할 수 있다.

2.1.3.2 袴兒[고스>고의], 把持[바디], 襦把持[햇바디], 袂把持[겹바디], 單把持[훗바디]

把持는 ‘바디>바지’의 차자표기로, 아랫도리에 입는 옷의 하나로, 위는 통으로 되고 아래에는 두 다리를 꿰는 가랑이가 있다. 把는 음이 ‘파’(把 자불 파<<유합, 하:29ㄴ>>)이지만, ‘바’의 음가자이다. 把는 이른 시기부터 ‘바’의 음으로 쓰였는데, 《鷄林類事》(방언)의 “工匠曰把指”(工匠은 바치라고 한다.)라고 하고, 《훈몽자회(1527)》(중:2 / 하:54)의 “優 ㄴ룻바치 우 / 工 공장바치 공” 등에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다. 持(지)는 ‘디(持 가질 디<<천자 17ㄴ>>, 持 자불 디<<유합, 하:8ㄱ>>지’의 훈가자 표기이다.

《신증유합》(상, 31ㄱ)에서 ‘袴 바디 고’, 《行用吏文》에서 ‘把持 바지 ○ 袴也’, 《蒙語類解》(상, 43ㄴ)에서 ‘綿褲 바지’라고 했다.

袴兒는 일찍부터 쓰였다. 『단종실록』 권4 1년 10월 임진(4일)에서 袴兒를 확인할 수 있다. 《번역박통사(1517) 상: 26》의 “적삼 고의 고두류엿 속오스란 안직 니리디 마져(衫兒袴兒裹肚等裹衣且休說)”와 《훈몽자회》(초간본) ‘중, 11’의 “袴 고의 고 又音 과”, 《역어유해》 ‘상, 45’의 “袴兒 고의 一云袴子 / 單孤 훗고의” 등을 고려하면, 袴兒(고아)는 漢語에서 온 말로, ‘고의’라 했다. 또한 ‘고의’보다 더 앞선 형태가 ‘ㄱ외’(어미 나흔 ㄱ외오=孃生袴子 | 오.《금강경삼가해》(2:61))이다.

『소현세자가례도감의궤』에는 把持만 표기되었지만, 『가례등록』(1638~1662)

에서는 襦把持, 袂把持, 單把持 등을 확인할 수 있다. 襦把持(유과지)는 ‘햇바디(綿袴兒 햇바디<<역해 상:45ㄴ>>)>햇바지’의 차자표기, 袂把持는 ‘겹바디(甲袴 겹바디<<역해 상:45ㄴ>>)>겹바지’의 차자표기, 單把持는 ‘훗바디>훗바지’의 차자표기이다.

『정조실록』(권38, 17년 12월 신유)에서 ‘單袴’와 ‘甲袴’를 확인할 수 있는데, 각각 ‘훗바지’와 ‘겹바지’를 뜻하는 표기이다.⁸⁾ 1601년 『의인왕후빈전훈전도감의궤』에서 확인되는 單袴와 袂袴도 ‘훗바디>훗바지’, ‘겹바디>겹바지’의 표기이다.

「병인가례시웃던의디볼기」(장서각 소장)에서 확인되는 ‘쇼고의’의 ‘고의’가 ‘單袴/훗고의’(<<역어유해>>(상, 45))의 ‘고의’에 대응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2.1.4 것옷[外衣]류 어휘

‘것옷’은 현대어 ‘겉옷, 外衣·表衣’에 대응하는 말로, 겉에 입는 옷을 이른다.

2.1.4.1 長衫[장삼], 袂長衫[겹장삼], 單長衫[훗장삼], 洗手長衫[세수장삼]

長衫은 조선시대에 비빈으로부터 양반층 부녀들까지 입었던 예복의 하나를 이른다. 겹으로 만든 것과 홀로 만든 것을 각각 袂長衫[겹장삼], 單長衫[훗장삼]이라 하고, 색깔에 따라 나누기도 했다. 『세종실록』 권9 ‘2년(1420) 9월 무인(13일)’에서도 袂長衫을 확인할 수 있다.

洗手長衫은 洗手할 때 입는 長衫이다.

2.1.4.2 大衫[한삼]

大衫은 왕후 의복의 하나로, 명나라에서 전래된 옷이라고 한다. 국어사전에는 大衫을 翟衣와 같은 말이라고 했는데, 이는 문제가 있어 보인다.

大衫은 「임오 천만세 동궁마마 가례시 지간턱 후 보니오실 빈궁마누라 의디 볼기」(장서각 소장)에서 확인되는 ‘한삼’에 대응하는 표기이다.

8) <<역어유해>>(상, 45)에서 ‘單袴 훗고의’라고 해서, ‘훗바지’를 ‘훗고의’라고도 했다.

2.1.4.3 長衣[장옷>장옷], 袂長衣[겹장옷], 襦長衣[하장옷], 納長衣[누비장옷]

長衣는 ‘장옷>장옷’의 표기로, 여자들이 나들이할 때에 얼굴을 가리느라고 머리에서부터 길게 내려 쓰던 옷으로, 예복 따위로도 입었다.

長衣는 “大段 장옷 蜜羅珠 것칼”《청구영언》(원, 64)이라고 한 것으로 보아, 주로 ‘장옷’이라 했음을 알 수 있다.

1601년 『의인왕후빈전혼전도감의궤』와 1632년 『인목왕후빈전혼전도감의궤』에서 長衣[장옷], 袂長衣[장옷], 襦長衣[하장옷], 納長衣[누비장옷] 등을 확인할 수 있다.

2.1.4.4 翟衣[덕의], 的衣[덕의]

1627년 『소현세자가례도감의궤』와 1638년 『인조장렬후가례도감의궤』 등에서 翟衣로 표기된 것이, 1623년 『인목왕후빈전혼전도감의궤』에서 的衣와 袂的衣로 표기된 데다가, 「병인가례시옷던의디블기」(장서각 소장)에서 ‘덕의’로 표기된 것으로 보아, 翟衣는 이 당시에도 ‘덕의>적의’라 했음을 알 수 있다.

2.1.4.5 道袍(도포)

道袍는 한자어인데, 통상 예복으로 입던 남자의 겹옷이다. 소매가 넓고 등 뒤에는 띠 폭을 낸다. 제주방언에서는 주로 ‘도복’이라 하여 마치 고유어인 듯이 쓰이고 있다.

2.1.4.6 加文刺[더그레], 襦加文刺[한더그레], 袂加文刺[겹더그레]

加文刺은 ‘더그레’의 차자표기이다. 加文刺을 가문자(加文刺) 또는 가문척(加文刺)으로 잘못 읽고, 심지어는 ‘가문자’ 또는 ‘가문척’이라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잘못이다.

加文刺[더그레]는 주로 雲袍 · 袞龍袍와 帖裏[帖裏] 사이에, 團領과 帖裏[帖裏] 사이에, 圓領과 帖裏[帖裏] 사이에 끼어 입었던 옷인데, 帖裏[帖裏] 안쪽에 끼어 입기도 했다.

《번역노걸대(1517)》(하, 50)에서는 漢語 ‘塔胡’의 번역어로 ‘더그레’를 쓰고, 《번역박통사》(상, 27)에서는 한어 ‘塔護’의 번역어로 ‘더그레’를 썼다.

조선왕조실록 중 『단종실록』, 『세조실록』, 『성종실록』, 『중종실록』 등에서는 ‘塔胡’를 확인할 수 있는데, 가례 때, 세자 생일 때, 회문례 때 입거나 관리에게 하사하는 의복 중 하나 등으로 나온다. 『세조실록』(권44, 13년 10월 갑인)에서는 塔胡를, 『세종실록』(오례, 흥례 의식, 습)과 『단종실록』, 『순종실록부록』(권17, 19년 4월 27일, 소림의대) 등에서는 ‘褶호(袷+夔)=半臂衣’를 확인할 수 있다. 『고종실록』(권21, 21년 6월 임진)에서는 전복으로 ‘半臂衣=綽子=塔護’를, 『고종실록』(권31, 31년 6월 계유)에서는 관청 관리의 私服 중 하나로 塔護를, 『고종실록』(권32, 31년 7월 병술)에서는 대궐 밖 관청의 관원의 근무복으로 ‘塔護’를, 『고종실록』(권32, 31년 12월 무오)에서는 朝臣의 大禮服 중 하나로 塔號를 표기하였다.

이상으로 볼 때 조선 초기부터 半臂衣는 塔胡·塔胡 또는 褶호(袷+夔)라고 쓰다가 17세기에 한때 加文刺[더그레]라고 썼다가 조선 후기에는 다시 塔護 또는 褶호(袷+夔), 塔號라 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p>加文刺二内 大紅雲紋匹段九尺 紅真絲一錢二分 同正白縮長一尺五寸廣二寸五分 白真絲一里 土丹大紅帥三十五尺 内拵大紅源帥三丈 同正白縮長一尺五寸廣二寸五分 紅真絲五分 紅帥三錢五分</p>	<p>紵絲褶護一即半臂衣</p>
<p>1624 소헌세자가례도감의례 世子宮衣褶</p>	<p>1649 인조빈전도감의례 습(夔)</p>

국어사전의 ‘더그레’ 설명에서 “1. 조선 시대에, 각 營門의 군사, 馬上才幹, 의금부의 羅將, 사간원의 囑道 등이 입던 세 자락의 옷. 소속에 따라 옷 빛깔이 달랐다. 2. 단령의 안에 받치는 감.”이라는 한 것은 수정 보완되어야 할 듯하다.

塔胡·塔胡, 褶호(衤+夔), 塔號, 半臂衣 등은 중국에서 들어온 말이고, 조선 후기부터는 우리말에서 몽골어 차용어인 ‘더그레’와 이의 차자표기인 加文刺[더그레]를 쓴 것으로 보인다.

‘더그레’는 몽골어 *degelei*(齊肩短褂) 갓동옷○더거레《蒙語類解補編》(복식부, 1971)의 차용어로 보고 있다. 김형수(1994:209)를 보면, “*degelei*(蒙) *dehele*(滿): 갓동옷(齊肩短褂)《蒙補 1971》, 갓동옷(短皮褂)《文上 55ㄴ》 / *degelei*(蒙), *gahari*(滿): 적삼(衫兒)《文上 55ㄴ》, 적삼(布衫)《淸11, 57》”라고 하였다.

『광해군일기』(권146, 11년 11월 을사)에서 ‘大紅匹段加文刺[다홍비단더그레], 大紅加文刺[다홍더그레] 등을, 『효종실록』(권3, 1년 3월 병진)에서 ‘大紅加文刺[다홍더그레], 藍色加文刺[쪽빛더그레]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조선왕조실록에서 17세기 초반 한때만 쓰였지만, 17세기 이후의 가례의례에서는 加文刺을 일반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17세기부터 ‘더그레’가 일반화된 것으로 추정된다.

『두산세계대백과』의 ‘답호(褶衤+夔)’의 설명을 보면, “……쾌자(快子:掛子)……라고도 한다.”라고 했다. 『정조실록』(권54, 24년 6월 경진)의 ‘소렴의대’와 『정조실록』(권54, 24년 7월 계미)의 ‘대렴의대’ 등을 보면 ‘褶衤+夔(답호)’와 ‘快子’가 따로 나오고, 『선조실록』(권92, 30년 9월 계사)에서 확인되는 掛子를 보면, 이들은 모두 다른 옷으로 보인다.⁹⁾

『세조실록』(권44, 13년 10월 갑인)에는 襦塔胡와 袂塔胡를 확인할 수 있고, 『단종실록』(권14, 3년 4월 정유), 『세조실록』(권43, 13년 9월 병자) 등에서 袂塔胡와 襦塔胡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것들은 『가례등록』(1638~1662) 등에서 확인되는 襦加文刺[하더그레], 袂加文刺[겹더그레]에 대응하는 것이라고 한다.¹⁰⁾

9) 《역보 28》에서 “掛子 긴 저고리”라고 하였다.

10) 袂 겹옷 헝 겹의《훈몽-초, 중:12》 襦 다른할옷 유《유합, 상:31ㄱ》

2.1.4.7 帖裏·帖裡·貼裏[털릭], 天益·天翼[턴익], 單帖裏[흔털릭], 襦帖裏[한털릭], 袂帖裏[겹털릭], 袂天益[겹턴익]

帖裏·帖裡·貼裏는 ‘털릭>칠릭’의 차자표기로, 이것은 團領이나 圓領 안에, 塔胡나 더그레[加文刺] 바깥에 끼어 입었던 옷을 이른다. 帖과 貼의 옛 한자음은 ‘텃’(帖 브틸 텃<<훈몽자회>>(상, 18ㄴ), 貼 팀바들 텃<<훈몽자회>>(하, 9ㄴ))이지만, ‘털릭’의 ‘털’의 음가자로 쓰인 것이다. 天益·天翼[턴익]으로도 표기된 것으로 보아, ‘털릭’이 소리가 변하여 ‘턴릭’이라고도 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번역노걸대》(하, 51)에서는 ‘비단 너븐 주름 턴릭(紵絲板褶兒)’으로, 《번역노걸대》(하, 46)에서는 ‘비단 너븐 주름 털릭’이라 하였다. 『세조실록』(권44, 13년 10월 갑인)에서는 襦傍褶兒와 袂傍褶兒를, 『세조실록』(권21, 6년 7월 갑오)에서는 單褶兒를 확인할 수 있다. 이로 보아 漢語 ‘褶兒’에 대응하는 말로 쓰인 근대국어 ‘턴릭’과 ‘털릭’은 몽골어 ‘terlig’ 또는 ‘terelig’(김형수, 1994:85에서는 ‘terlik: 소음 둔 옷(棉袍)《청 11:4ㄴ》)에서 온 말이다.

『세종실록』(권25, 6년 8월 무오) 등에는 帖裏로, 『세종실록』(권103, 26년 3월 병자) 등에는 貼裏로, 『성종실록』(권256, 22년 8월 임신) 등에는 天益으로 표기되어 있다. 조선왕조실록의 경우, 『광해군일기』(권176, 14년 4월 무자)까지는 天益으로 표기되고, 『경종실록』(권4, 1년 6월 갑오)에서부터는 天翼으로 표기되었다.

또한 『세조실록』(권21, 6년 7월 갑오)에서는 帖裏와 汗帖裏를, 『세조실록』(권46, 14년 4월 경술)에서는 帖裏와 ‘單帖裏’를, 『단종실록』(권14, 3년 4월 정유)에서는 袂帖裏를, 『성종실록』(권256, 22년 8월 임신) 등에서는 ‘袂天益, 襦帖裏’를, 『연산군일기』(권2, 1년 1월 경인)에서는 襦帖裏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성종실록』(권256, 22년 8월 임신)을 보면, “左承旨 許琛이 下直하니, 許琛에게 柳靑四段袂天益과 紫紬襦帖裏를 각 1領씩 下賜했다.”라고 했다. 이 내용은 天益과 帖裏이 원래 다른 옷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이와 같이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조선 후기에도 天翼과 帖裏이 혼용되어 쓰였다.

17세기 의궤에서는 일반적으로 帖裏·帖裡·貼裏·貼裡로 쓰였으나, 『인조장렬후가례도감의궤』(1638)에서는 襦天益으로 쓰였다. 『영조정순후가례도감의궤』(1759)에서도 襦天益을, 『고종임인진연의궤』에서도 天翼을 확인할 수 있다. 『순조

순원후가례도감의궤』(1802)에는 襦天益과 帖裏가 동시에 표기되어 있다.

單帖裏는 ‘훗털릭>훗철릭’, 袂帖裏는 ‘겹털릭>겹철릭’, 襦帖裏는 ‘햇털릭>햇철릭’, 汗帖裏는 ‘땀털릭>땀철릭’의 차자표기이다. 汗帖裏는 땀을 받아내려고 입을 철릭이다.

‘철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기록도 참고가 된다.

帖裏 ○ 털릭 秋褶 ○ 털릭 《역해, 상:44》

帖裏 털릭 戎服也 亦漢語卽綴翼 帖作貼 《行用吏文》

帖裏 털릭 帖裏者戎事之服也……今俗誤以爲天翼或以綴翼 《雅言覺非》

衣襦前後被曰天翼 從戎之服也 《洛下生藁》

今世士大夫燕服 皆用道袍 而武弁則用綴翼 《星湖僊說》(萬物門, 道袍)

그런데 帖裏와 天益은 조금 다른 옷이 아닌가 하고 추정한다. 왜냐하면 1649년의 『인조빈전도감의궤』를 보면, 白亭布帖裏와 大紅紗帖裏, 大紅雲紋大段天益을 아울러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1601년 『의인왕후빈전훈전도감의궤』에서 확인되는 添里도 ‘털릭>철릭’의 표기로 보인다.

2.2 복식 관련 어휘

복식 관련 어휘는 머리에 쓰거나 치장으로 쓰는 것, 옷 치장이나 장식으로 다는 것, 버선과 신발과 관계된 것 등이 있다.

2.2.1 馬尾笠·馬毛笠[말총갓]

馬尾笠은 ‘말총갓>말총갓>말총갓’의 차자표기로, 말의 갈기나 꼬리의 털로 만들어 머리에 쓰던 갓을 이른다. 馬는 훈독자로 ‘말>말’, 尾는 ‘말의 갈기와 꼬리의 털’을 뜻하는 말 ‘총’의 훈독자, 笠은 ‘갓(갓<훈민정음(해례본)(1446)>>)>갓’의 훈독자이다. 《박통사언해(1777)》에 보이는 ‘말총체’를 참고할 수 있다.

2.2.2 回繩[돌이노], 懸伊[돌이노·도래노], 纓懸伊[긴걸이], 片竹[조각대], 長竹[긴대], 涼太[양태], 回伊沙拘伊[돌이사굴이], 金都多益[금도타락], 密裏[밀리]

馬尾筓[말총갓]과 관련된 고유어 차자표기는 回繩[돌이노·도래노], 懸伊[걸이], 片竹[조각대], 長竹[긴대], 涼太[양태], 回伊沙拘伊[돌이사굴이] 등이 있다. 回繩은 ‘돌이노·도래노’의 차자표기로, 갓 둘레를 한 바퀴 돌아가며 감는 노를 이른다. ‘갓양태의 테두리’를 ‘갓도래’라고 하는데, 回는 바로 ‘도래’를 표기한 훈독자이다. 纓子懸伊는 ‘영자걸이·끈거리’의 차자표기로, 갓끈의 걸이를 이른다. 纓子懸伊는 纓懸伊로도 표기했는데, 이것은 ‘긴걸이>끈걸이’의 차자표기이다. 片竹(편죽)은 ‘조각대’의 차자표기로, ‘갓끈걸이’를 만드는 데 쓰는, 조각으로 된 대나무를 이른다. 長竹은 ‘긴대’의 차자표기로, 帽子를 만드는 데 쓰는 대나무를 이른다. 涼太는 ‘양태’의 차자표기로, 갓모자의 밑 둘레 밖으로 둥글넓적하게 된 부분인 갓양태를 이른다. 回伊沙拘伊는 ‘돌이사굴이’의 차자표기로, ‘回伊[돌이]+沙[사·쇠]+拘伊[굴이]’의 구성이다. 回伊[돌이]는 무엇의 둘레를 한 바퀴 돌아가거나 감은 것을 뜻하는 말이고, 沙는 ‘쇠’, 곧 ‘쇠鐵·金’을 뜻하는 말이고, 拘伊[굴이]는 테두리를 둥글게 감은 것을 이르는 말이다.

金都多益眞珠粧筓[금도다익진주장간]의 都多益은 《전률통보》(초고본, 권6, 工匠)의 “都多益 도타락 박는 장”이라고 한 것을 고려하면, ‘도투락’의 옛말인 ‘도타락’에 대응되는 차자표기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多益이 어떻게 ‘타락’의 표기로 쓰였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도타락’은 나중에 ‘도토락(都多益 도토락당고《광재물보》(1, 人道部, 女))’로 변했다가, 오늘날은 ‘도투락’이라 하고 있다. ‘도타락’은 ‘도티-’에서 파생된 것이 아닌가 한다.

『성종실록』(권138, 13년 2월 신해)의 “都多益大紅匹段”과 『연산군일기』(권57, 11년 1월 무신)의 “逆祥服都多益所入金”, 『연산군일기』(권57, 11년 4월 을축)의 “金都多益, 雌黃都多益” 등에서 都多益을 확인할 수 있다. 17세기 각종 의례에서도 都多益과 金都多益을 확인할 수 있다. 17세기 의례에서 표기된 都多益은 18세기·19세기 의례에서는 道士落·都土落·桃吐落(도토락)·道士落只(도토락지) 등으로

도 표기하였다.

한편 현대 국어사전에 ‘도다익장(都多益匠)’을 등재하고, ‘조선시대에, 관아에 속하여 궁녀가 쓰는 도투락매기를 만드는 일을 하던 사람’이라고 설명했는데, 이것은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馬尾는 ‘말총’의 차자표기로, 의궤에 따라 馬毛로도 표기되었다. 密裏는 갖의 한 부속품인데, 그 뜻은 확실하지 않다. ‘밀리’의 차자표기이다.

2.2.3 同正[동정], 內拱[안짱], 腰線[허리선], 月尔只[달마기]

옷과 관련한 고유어 차자표기는 同正[동정], 內拱[안짱], 腰線[허리선] 등이 있다. 同正은 ‘동정>동정’의 차자표기로, 加文刺[더그레]와 周衣[두루마기] 따위의 한복 저고리 깃 위에 조בות하게 덧대어 꾸미는 하얀 형겔 오리를 이른다. 內拱은 ‘안짱’의 차자표기로, 오늘날 국어사전에는 ‘옷 안에 받치는 감’인 ‘안짱’과 ‘안감’, ‘안’에 대응하는 한자어로 ‘內拱’이 등재되어 있다. 腰線은 ‘허리선>허리선’의 차자표기로, 옷의 허리를 이루는 선을 이른다. 철릭[帖裏] 따위에 놓았다. 月尔只是 ‘달마기’의 차자표기로, 단추 종류 중 하나를 이른다. 《번역노걸대(1517)》(하, 52)와 《박통사 언해(1677)》(중, 55) 등에서 ‘달마기’를 확인할 수 있고, 《훈몽자회(1527)》(예산 문고본, 중:12)와 《역어유해(1690)》(상, 45) 등에서 ‘수달마기’와 ‘암달마기’(紐수달마기 뉴 俗呼紐子 又純□ 암달마기 구 俗呼□兒 / 紐子 ○ 수달마기 □子 암달마기)를 확인할 수 있다. 철릭[帖裏] 따위에 달았다.

2.2.4 衿[깃>깃], 袴[테]

把持[바디>바지]에 들어가는 것은 衿[깃>깃], 袴[테] 등이다. 衿은 ‘깃>깃’의 차자표기이고, 저고리나 두루마기의 목에 둘러대어 앞에서 여밀 수 있도록 된 부분. 위의 가장자리는 동정으로 쓴다.

2.2.5 汝火[너블], 袂汝火[겹너블], 羅火[너블·나블], 羅兀[너울], 每緝[미줍]

汝火와 羅火는 “너블>*너블>너울’의 차자표기로, 예전에, 여자들이 나들이할

때 얼굴을 가리기 위하여 쓰던 물건이다. 얇은 검정 깃으로 만든다. 근대국어시기의 의궤에서는 汝火(여화)로 표기하다가 점차 羅兀로 표기하였다.

『태종실록』(권15, 8년 5월 계유)에서는 “蓋頭[布帽와 羅火, 笠]”라고 하고, 『중종실록』(권39, 15년 5월 무술)에서는 “서지가 아뢰기를, ‘신이 듣건대 河斑이 도망할 때에 여자 옷을 입고 羅火[방언으로, 얼굴을 가리는 물건을 말한다.]을 쓰고서 나갔다고 합니다.’라고 하였다.”라는 내용에서, 羅火를 확인할 수 있다. 『숙종실록』(권41, 31년 3월 갑진)에서부터는 羅兀이 쓰였다.

이상을 고려하면 원래 羅火라고 표기하다가 汝火, 羅兀로 표기하고, 오늘날의 ‘너울’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가례언해(1632)》(8: 37, 97)에 ‘너울’이라 하고, 17세기 의궤에서 주로 汝火가 확인되고, 18세기 이후의 의궤에서는 羅兀로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그 이전에 “*나불>*나불[羅火]”이라 하던 것이 15세기 말에서 16세기 초반에 “*너블>*너블”이 ‘너울’로 소리가 바뀐 것으로 볼 수도 있고, 羅火의 羅가 처음부터 ‘나’의 유사음 ‘너’의 음가자 표기로 쓰인 것으로 볼 수도 있다. 필자는 후자로 본다.

17세기 초반 의궤에서는 汝火가 일반적으로 확인되고, 羅兀도 확인된다. 그러므로 羅兀은 이미 변한 음성형을 표기한 것으로 보이고, 汝火는 이른 시기의 표기형이 그대로 전해진 의고형으로 보인다.

‘너울’은 홀으로 만든 너울과 겹으로 만든 너울이 있는데, 홀으로 만든 너울은 汝火, 羅火, 羅兀 등으로 표기하고, ‘겹너울’은 袂汝火, 袂羅火, 袂羅兀 등으로 표기했다.

너울에는 매듭이 달리는데, 每緝으로 표기하였다. 每緝은 ‘미듭(《월인석보(1459)》)>미듭’에 대응하는, 또 다른 말 ‘미즙(流蘇 미즙《四聲通解》(상, 40), 네 쌀의 流蘇 미즙을 드리울 쓰러미라《가례언해(1631)》(7:31))’에 대응하는 말이다. 그러므로 每緝은 ‘미즙’의 차자표기라 할 수 있다.

2.2.6 昌[창]창] 回伊·道里[돌이]

昌은 ‘창>창’의 차자표기로, ‘신창(신창《구급방언해(1466)》)>신창’에 대응하는 말이다. 回伊와 道리는 ‘돌이’의 차자표기로, 현대어 ‘신돌이’에 대응하는 것이다.

현대국어사전에서 ‘신돌이’는 “신의 가장자리에 둘러 댄 장식”이라 했는데, “신의 가장자리에 둘러 대는 것”을 이른다. 왕세자나 왕후의 신의 돌이는 개가죽[狗皮]을 사용하였다.

2.2.7 首沙只[마리사기], 首髻[머리쓰개]

首沙只은 ‘마리사기>머리사기’의 차자표기이다. 여자들이 머리에 꽂는 장식 중 하나이다. 《악학궤범(1493)》에 “流蘇 俗稱마리사기”라고 하고, 현대 국어사전에 이 설명을 인용하여 ‘마리사기’를 “流蘇의 옛말”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旗나 북[鼓], 징[鏡·鐺], 수레[輦] 따위에 다는 것도 流蘇이기 때문에, ‘마리사기’는 “머리에 다는 술” 정도로 설명을 한정해야 한다.

『세조실록』(권20, 6년 4월 을묘)을 보면, “首飾禿臺腰首紗只—[首飾以彩段爲之, 制如經飾. 以珠玉, 後垂長纓八條. 無珠玉之飾者, 俗謂之禿臺腰]”에서 首沙只을 확인할 수 있다.

『조선조 말기 왕실 복식』(p.163)의 ‘도록 189’에서 ‘마리삭 금당기’라고 쓴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마리사기’를 ‘마리삭’이라고도 했다.

首髻는 ‘머리쓰개’의 차자표기이다. 여자들이 머리 위에 쓰는 것 등 하나이다.

2.2.8 帶腰[대요]

帶腰는 ‘대요’의 차자표기이다. 머리 위에 다는 장식 중 하나이다. 『세조실록』(권20, 6년 4월 을묘)을 보면, “首飾禿臺腰首紗只—[首飾以彩段爲之, 制如經飾. 以珠玉, 後垂長纓八條. 無珠玉之飾者, 俗謂之禿臺腰]”에서 臺腰(대요)와 禿臺腰[뮌대요>민대요]를 확인할 수 있다. 머리 장식 중 하나로 구슬과 옥 장식이 없는 것을 민간에서 ‘뮌대요>민대요’라고 한다고 하였다. 臺腰와 帶腰로 표기되는 것으로 보아, 이것은 ‘대요’의 차자표기라 할 수 있다.

복식사전이나 국어사전 등에서 帶腰를 확인할 수 없다.

2.2.9 回粧[돌이장식], 纓懸伊[긴걸이], 竹甘伊[대감이]

回粧은 현대어 ‘回裝’에 대응하는 것이다. 현대국어에서는 ‘半回裝, 三回裝, 회장저고리(回裝---), 반회장저고리(半回裝---), 삼회장저고리(三回裝---)’ 등을 확인할 수 있는데, ‘돌이장식’을 뜻하는 말이다. “回粧五色羅各長一尺廣一寸 五色[白紫的柳青草綠大紅]”는 ‘돌이장식감 오색길 각 길이 1자, 넓이 1치, 오색은 흰색, 자주, 유청, 초록, 다홍’을 뜻한다.

纓懸伊는 纓子懸伊로도 표기되었는데, ‘(갂)긴걸이 · (갂)긴걸이’의 차자표기이다. 《번역노걸대(1517)》에서 ‘갂긴’을, 《벽온신방(1653)》에서 ‘구슬갂긴’을 확인할 수 있다. ‘갂끈걸이’를 이른다. “笠一……大小纓懸伊紫的羅長一尺二寸廣五寸五分”는 “갂 하나……크고 작은 끈걸잇감 자주길 길이 1자 2치, 넓이 5치 5푼”을 뜻한다.

竹甘伊는 ‘대감이’의 차자표기이다.

2.2.10 裊裏·甫乙裏[볼리], 甫只·裊只·甫乙只[볼끼]

裊裏·甫乙裏는 ‘볼리’의 표기이고, 甫只·裊只·甫乙只는 ‘볼끼’의 표기로, 근대국어의 ‘볼끼(遮臉皮 볼끼《역어유해보(1775)》 28), 현대국어의 ‘볼끼’에 대응하는 것이다.

甫只·裊只·甫乙只는 ‘볼끼’의 둘째 음절 첫소리를 불완전하게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는데, 裊裏·甫乙裏는 ‘볼끼’의 둘째 음절 첫소리를 반영하지 않은 표기이다.

3. 결론

지금까지 17세기 의례에서 확인되는 차자표기의 복식 어휘 중 특히 고유 복식 어휘로 인식되는 것을 중심으로 하여 국어사적, 국어학적으로 고찰하였다.

그 결과 되살려 써야 할 고유 복식 어휘가 이외로 많이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더욱이 한자 차용 표기가 마치 정상적인 복식 어휘인 듯이

쓰는 것도 많고, 국어사전이나 복식 관련 사전 등에서 전통의 복식 어휘 설명에 문제가 있는 것도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앞으로 조선왕조실록은 물론이고 근대국어 시기 의궤류에서 확인되는 복식 어휘의 차자표기를 바르게 해독하고, 바른 용법을 확인하여 되살려야 한다.

특히 赤傘가 ‘적마’의 표기가 아니라 ‘치마’의 표기라면, 加文刺은 ‘가문랄’의 표기가 아니라 ‘더그레’의 표기이다. 곧 한자 차용 표기를 마치 한자음인 듯이 읽어 버리거나 그것을 한자어인 듯이 그대로 사전류에 등재하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것이다. 곧 帖裏·帖裡·貼裏가 몽고어 ‘몽골어’terlig’ 또는 ‘terelig’에서 온 ‘털릭’의 차자표기라면, 국어사전에 ‘철릭’에 대응하는 말로 帖裡를 따로 등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또한 都多益은 ‘도투락’의 옛말 ‘도타락’에 대응하는 표기인데, 현대 국어사전에서 ‘도투락’을 ‘도투락댕기’와 같은 말이라고 잘못 설명하는 것들도 문제가 있다. 더욱이 ‘도다익장(都多益匠)’을 따로 등재하여, ‘조선시대에, 관아에 속하여 궁녀가 쓰는 도투락댕기를 만드는 일을 하던 사람’이라고 설명하는 것도 문제가 된다.

이와 같이 조선시대의 차자표기 복식 어휘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연구가 진전되어 이렇게 잘못된 내용들을 바로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하고, 이 연구가 그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주제어: 가례도감의궤, 의궤, 고유 복식 어휘, 한자차용표기, 차자표기, 고유어

<참고문헌>

- 고복남(1981), “한국복식용어의 변천사적 연구: 실물복식 용어를 중심으로”, 『한국민속학』, 1~40쪽, 한국민속학회.
- 국립민속박물관(1996), 『한국복식2천년』, 도서출판 신유.
- 김경실(2003), 『조선시대 궁중 진연 복식』, 경춘사.
- 김영숙(1998), 『한국복식문화사전』, 미술문화.
- 김영자 외 3인(1999), 『조선시대 복식 연구』, 학연문화사.
- 남광우 편저(1997), 『교학 고어사전』, (주)교학사.
-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1981), 『조선시대 궁중복식』.
- 박성실(1991), “빈전도감의궤에 나타난 복식 연구-의인왕후 및 인목왕후를 중심으로”, 『복식』 16호, 한국복식학회, 43~65쪽.
- 박성실(1992), “조선 전기 출토 복식 연구: 임진왜란 이전 시기를 중심으로”, 세종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성실 · 조효숙 · 이은주(2005), 『조선시대 여인의 멋과 차림새』, 단국대학교출판부.
- 송미경(2009), “17세기 초기 상례기록을 통해본 조선시대 여자 복식”, 『한복문화』 제12권3호, 69~90쪽, 한복문화학회.
- 안애영 · 박성실(2009), “임오(1882)년 가례 왕세자 복식 연구(1)-면복을 중심으로”, 『복식』 제59권 10호, 68~84쪽, 한국복식학회.
- 어문각(1992), 『우리말큰사전: 4. 옛말과 이두』.
- 오창명(1997), “『의궤』에 나타나는 차자 표기 연구(1): 조선 후기 복식 어휘를 중심으로(1)”, 『한국복식』 15호, 단국대학교 석주선민속박물관, 29~64쪽.
- 유송옥(1991), 『조선왕조 궁중의궤복식』, 수학사.
- 조효순(1981), “정조의 현릉원 행차시의 궁중의례복식고: 정리의궤를 중심으로”, 『복식』 제5호, 113~140쪽, 한국복식학회.
- 홍나영 · 유희경(1983), “조선왕조의 왕비법복에 관한 연구”, 『복식』 제7호, 5~19쪽, 한국복식학회.
- 황금연(1997), “『의궤』류의 한자 차명 표기 연구”, 전남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Abstract]

A transcribing Korean with Chinese characters of an Korean dress and its ornament vocabulary

- Centering in Garyedogamuigwe(가례도감의궤) -

Oh Changmyeong

This paper is to have studied an dress and its ornament vocabulary of a transcribing Korean with Chinese characters confirmed to the 17th century Uigwe.

Specially, detoxified a transcribing Korean with Chinese characters of an Korean dress and its ornament vocabulary, and considered to a Korean Historical, Korean Studies in this study.

Therefore for there to be many recalling Korean dress and its ornament vocabularies that shall put on besides meanings were able to know that cannot be so.

Also, it was able to confirm a lot of things to a traditional dress and its ornament vocabulary explanation at a Korean language dictionary or an dress and its ornament dictionary etc. that there was a problem.

Confirm a unique usage counteract justly the poison, and to have applied that it rises, and is confirmed at Uigwe(儀軌) of the modern Korean times not to mention True Record of the Joseon Dynasty, and restore, and shall put in the future.

【Key Words】 : Garyedogamuigwe(嘉禮都監儀軌), Uigwe(儀軌), Korean dress and its ornament vocabulary, The transcribing Korean with Chinese

characters, A transcription of Korean, A native tongue.

오창명

제주대학교 교육과학연구소 연구교수

(690-77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건입동 940-3 현대아파트 108동 701호

전자우편: garinyeo@naver.com

이 논문은 2010년 5월 9일에 투고되었으며, 2010년 5월 24일에 심사 완료되어
5월 27일에 게재 확정되었음.

